

2026년 5월 글로벌 보안 전망: 중동권역

- 미-이란 휴전 연장에도 중동 정세 불안 지속...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 기인한 해상-에너지 교란 장기화 전망
- 외교 교착 장기화에 당사국간 충돌 재개 가능성 확대...역내 확산 및 항공 운항 차질 우려



Image: Reuters

현황

미-이란 휴전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4월 동안 중동 지역 내 긴장과 불안은 지속됐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 8일 합의된 초기 2주간의 휴전은 직접적 군사 충돌을 중단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등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 대한 협상 위반 책임을 제기하며 합의 조건의 취약성이 부각되는 상황 지속으로, 당사국간 이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21일 미국은 긴장 고조의 방지 및 협상을 위한 외교 채널 유지를 위해 휴전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 재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이란 군사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 중재 및 협상을 주도했으며, 이란은 자국의 레바논 내 동맹 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중단을 미-이란 휴전 조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중재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역내 보안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간헐적으로 해협을 개방하면서도 통항을 위한 자국 해군과의 사전 조율을 요구하는 등 선별적 통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동안 상선 피격 등 다수의 해상 사건이 보고되면서 해상 보험료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추가 항모 전개를 지속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해군력이 집중된 상황에 이로 인한 오판에 따른 충돌 위험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일부 완화됐으나, 미-이란 긴장의 파급 효과는 중동 전역 및 그 외 지역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으며, 역내 연료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운송-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휴전 이후 항공편은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나, 운항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긴장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항공편 운항 감소, 운임 상승, 항로 간 경유 등 연결성에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료 공급 차질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및 정제시설 운영 차질은 전 세계 항공유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추가 연료 적재, 탑재 중량 제한, 특정 노선 우선 운항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망

미-이란간 휴전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의 선별적 통항 통제가 병행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내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과 함께 향후 수주간 중동 지역 상황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상선에 대한 위협 행위, 일시적 나포, 경고 사격 등 추가적인 해상 보안 사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별 사건으로부터의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동일한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해역내 교란 행위 증가로, 해상 운송 전반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미-이란 외교 협상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휴전 연장은 단기적 긴장 완화 의지를 반영하나, 협상은 장기화, 조건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사건 등 병행되는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5 월 동안 외교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중재 중인 이스라엘-레바논 협상 역시 5 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협상이 진전을 보이더라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포괄적인 충돌 종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미-이란 협상이 교착될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공조 하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단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역내 국가 및 해상 자산이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대행위 재개 시 영공 폐쇄 및 항공편 운항 중단이 발생하며, 항공 운송 차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이란 휴전이 실패할 경우, 이는 이스라엘-레바논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경우, 레바논 내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작전도 동시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악화 지표	평가
미-이란 협상 교착	협상 진전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발언 수위 고조의 경우 협상이 미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교적 해결 가능성 축소 양상으로 전개 가능성 증가.
예멘 후티 반군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 선박 공격	이란과의 연대 차원에서 후티 반군 세력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과 선박에 항행 방해 시도 가능성 존재. 이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역내 분쟁의 지리적 범위 확대 가능성 증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대치 재개	군사적 충돌이 재개될 경우, 걸프 아랍 국가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이란발 추가 공격 위험 증가 가능. 기존 분쟁 과정에서 이란은 주요 에너지 시설뿐 아니라 담수화 시설 등 민간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시설을 공격해 온 바,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이란 내 유사 시설 타격시, 역내 유사 시설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 증가.

※주황색: 일부 변화 가능성 존재, 영향 고조 / 적색: 발생 가능성, 발생시 영향 심각

인터내셔널 SOS 지원 현황

당사는 역내 전반에 걸쳐 사무소 및 클리닉을 포함한 현장 기반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4 시간 상시 운영되는 권역 지원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항공 보안 전담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역내 전반에 걸쳐 구축된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보안, 물류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안서비스에는 보안 차량 이동, 근접 경호, 대피 지원등이 포함되며, 서비스 전개 시간은 요청 시점의 위치 및 자원 가용성에 따라, 서비스 개시까지 약 24~48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로부터 사전 평가된 권고 호텔 네트워크를 역내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소 선정 관련 자문은 지원 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nd Report